

지역 매 아리

정읍시, 상습 체납자 제제 강화

정읍시가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행정적 제제를 강화한다.

이는 지난 5일 정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이 내놓은 호화생활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한 행정적 대응강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 고액 체납자는 여권을 발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출국 금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여권을 발급받은 당일 출국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까지는 체납자에게 여권이 없는 경우 출국 금지가 불가능했다.

체납자가 친인척 계좌로 재산을 은닉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5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의 배우자와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 금융조회를 허용하는 금융실명법 개정을 통해 체납자의 재산조회 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이다. 또 자동차세를 악의적·상습적으로 10회 이상 체납한 경우 체납자의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단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쳐도록 해 생계형 체납자는 보호할 계획이다. 현재 정읍시 자동차세 10회 이상 체납자는 10명, 1억7000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41%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체납에 대한 시민 인식이 바뀌 수 있도록 제도개선 사항을 홍보해 체납액 없는 지자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임신부·영유아 대상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교육

정읍시가 18일 영양플러스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임신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플러스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어린이를 키우는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응급상황과 안전사고에 대비해 응급처치법과 심폐소생술,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법에 대한 이론과 실습으로 꾸며졌다.

참여자들은 실습용 마네킹을 활용해 직접 기습을 압박하면서 긴급한 상황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길렀다.

보건소 관계자는 "영유아의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며 "긴급상황에서도 침착하고 안전하게 대처해 영유아들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영양플러스사업은 영양 상태가 부족한 영유아와 임신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를 대상으로 보충 영양식품을 공급하고 영양교육을 진행해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이다.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65% 미만의 영양 문제를 가진 임신·출산·수유부와 60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의회가 18일 제302회 임시회에서 '일본정부의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명분없는 보복, 즉각 중단하라”

부안군의회, 일본정부 경제보복 규탄 결의

부안군의회(의장 이한수)는 18일, 제302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일본정부의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대한민국 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에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한 것에 대해 부안군의회 의원일동은 한 마음 한 뜻으로 일본의 경제 보복을 강력히 규탄하고,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우리 사법부의 정당한 배상 판결 이행을 촉구했다.

결의문을 대표 발의 한 김연식의 의원은 "이런 무리수는 일본정부가 외교적 문제를 경제적 보복으로 이슈화하여 이달 21일로 예정된 일본의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보수층을 결집하려는 일본의 불순하고 졸렬한 의도라 생각된다"며 "일본이 과거사를 반성하고 경제보복 조치를 중단할 때까지 우리국민들은 일본여행을 자제하고 일본상품 구매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지역 상생방안 논의

첨단방사선·바이오소재 생명공학 등 다양한 연구성과 확산 집중

유전집 시장이 18일 대전에 소재한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을 방문해 기관 간 다양한 상생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정읍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 중인 신성장 연구단지 소재 첨단방사선 연구소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의 중장기 발전방안과 연구 역량을 활용, 기술사업화 등을 통한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뤄졌다. 유 시장은 먼저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 박원석)을 방문해 정읍 첨단방사선연구소 중심 방사선 분야 세계적인 메카 육성전략 등을 논의했다.

방사선기기간업 등 신산업 생태계 조성 및 함께 전자가속기를 이용한 축산액비 약취저감 기술개발 등 지역현안문제에도 공동 대응하는데 공감대를 같이 했다.

이어서 ATLAS(열수력 종합효율화 장치)와 SMART-ITL(스마트종합열수력시험시설) 등 현장도 둘러봤다.

두 번째로 방문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원장 김장성)에서는 정읍 영양류자원연구소 후속사업 추진과 영장류 인프라 완성도 제고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동물의약품 클러스터 조성 관련해서는 생명공학연구원 이종식 과장과 바이오신소재 개발 평가지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유전체맞춤의료전문연구단과 바이오노노연구센터 핵심시설을 견학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교통약자 위한 전기저상버스 시범 운행

정읍시가 지난 17일 교통약자 편의 개선을 위해 전기저상버스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47인승 대형 전기저상버스는 277번과 277-1번 버스가 주행하는 시내순환 노선인 수성동지구 제1아파트 정읍역-생고를 시장-화산고-중앙로 등 20km 구간을 운행했다.

시는 운행을 통해 도로가 협소한 구간과 급커브 구간의 주행 가능 여

부를 확인하고 버스 승하차 장치가 현지 승강장에서 문제없이 작동하는지를 파악했다.

그 결과 시는 "기존 우려했던 과속방지턱 등 도로 시설물로 인한 주행 불편이 없었으며 협소한 구간과 급커브 구간의 주행 시에도 큰 어려움은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기존 시내버스와 달리 2m 정도 더 길다는 점과 승하차 장치의 작동에 대해

서는 운전기사의 주의 교육이 더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전기저상버스의 도입 초기 비용은 약 5억 원으로 비싸다는 단점이 있으나 연비 비용을 연 2천만 원 정도 절감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볼 때 효율적이다"고 전했다.

유전집 시장은 "시범운행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겠다"며 "전기저상버스 도입을 통해 미세 먼지를 줄이는 물론 교통약자의 편의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로컬잡센터 - 한전, 일자리창출 업무협약 체결

고창군로컬잡센터(센터장 김희진)는 한국전력공사 고창지사(지사장 임한우)와 고창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최근 고창군로컬잡센터 김희진 센터장과 한국전력공사 임한우 고창지사장은 한국전력공사 고창지사 회의실에서 '고창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을 열었다.

양 기관은 향후 구인·구직자 공동 발굴 및 일자리 정보제공, 고창군민들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공동 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전력공사 고창지사에는 40여명의 직원들이 일하고 있다. 검침회사·배전공사 협력사 등 유관업체와 함께 안정적 전력공급 및 지역 친화적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전은 고창군로컬잡센터와 함께 지역 내 여러 일자리 발굴과 지원활동 등을 함께 할 계획이다.

한국전력공사 임한우 고창지사장은 "한전은 대표 공기업으로서 실용성 있는 일자리 창출 지원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권익현 부안군수가 코스타리카 대통령 면담 후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세계 속으로 비상하는 '부안'

권익현 군수, 세계잼버리 개최도시 부안 집중 홍보 코스타리카 지방정부협약 MOU 체결식서 우수사례 발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한국정부대표단 자격으로 코스타리카와 캐나다, 미국 등 북중미 3개국을 방문 중인 권익현 부안군수가 코스타리카에서 2023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유치 및 성공개최 방안 등을 내용으로 우수사례 발표를 하는 등 세계잼버리 개최도시 부안 홍보에 집중했다.

이번 우수사례 발표는 코스타리카 카를로스 알바라도 대통령의 초청에 따른 것으로 정부부처 관계자 및 국회의원,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회원회 단체장 등 60명이 동행했다.

권익현 군수는 코스타리카 산호세 대통령궁에서 진행된 코스타리카 경제개발 지방정부협약의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업무협약(MOU) 체결식에서 2023년 세계잼버리 개최도시, 글로벌 휴양 관광도시 부안, 세계로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전 세계 속으로 비상하고 있는 부안을 집중 부각시켰다.

권익현 군수는 "코스타리카 면적의 0.9%와 인구 1.2% 규모인 작은 도시 부안이지만 세계에서 가장 긴 새민금방조제와 세계에서 인장한 자갈공원 명소 등 천혜의 자원을 갖고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가진 도시"라고 부안을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오는 2023년 8월 1일부터 12월까지 170개국 5만여명의 전 세계 젊은이들이 부안에 모인다"며 "세계잼버리 개최를 위해 막대한 SOC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이로 인해 교통·관광 인프라가 획기적으로 확충될 것"이라며 글로벌 부안 도약을 강조했다.

권익현 군수는 또 "부안은 새민금방조제와 공항, 철도, 고속도로의 연계로 동북아 경제, 물류, 관광의 허브로 도약할 것"이라며 "2023 세계잼버리 개최도시, 새민금 중심의 글로벌 휴양관광 도시, 이제 새로운 부안시대가 시작된다"고 미래 100년 부안의 비전을 제시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It features images of wine bottles, gift sets, and a cartoon character. Text includes 'Mulberry Wine',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and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It lists various gift set options with prices and quantities.